"각종지표서 경제회복 흐름 확인… 국민 체감위해 최선"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경제반등 추세 이어가기 위해 정부, 책임·역할 더욱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렸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과 백신 수급, 경제 회복 흐름 체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가운데 한국 경제 관련 각종 지표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강화와 함께 "정부는 경제 반등의 추세를 힘있게 이어가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월 산업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인 점, 3월 수출로 역대 최고치가 나타나 5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 등 경제 회복 지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라며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국민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흐름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자리 회복 ▲서민 경제 살리기 ▲포용적 회복 등에 이어 "기업과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산업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 경기 회복 촉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 이르는 4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난 데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우리가 관리해 온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 관리뿐 아니라 방해 행위 및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점을 두고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백신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도시·임야에 나무심어 탄소중립 이루자"

文 대통령 부부,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
상지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나무심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서울 마포구 복합화력발전소(옛 당인리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석탄발전소가 공원으로 바뀌는 그곳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심었다.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완화 차원의 도시숲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주목', '회양목' 등 두 종류의 나무를 상지초등학교 '상지숲사랑청소년단' 어린이와 함께 직접 심었다. 이후 행사에 함께한 어린이와 정부·공공기관 등 관계자와 함께한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도시, 임야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목표도 이루고, 미세먼지도 줄여 지구도 지키고, 어린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금은 지구 온난화·탄소 중립화 대책으로 필요하게 됐다"며 "많은 나라들이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세웠다. (이에)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를 흡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식목일 행사가 열린 곳은 한국 최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지하에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이어 식목일 행사에서 심은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말이 있는 나무이고, 회양목의 경우 '참고 견뎌낸다'라는 의미가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올 수출 플러스 전환에 첨병역할을"

성윤모 장관, 35국 상무관 화상회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35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무관 회의' 열고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2025년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첨병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산업·통상·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와 시장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관이다. 이번 상무관 회의는 그간 대면으로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열렸고, 51명의 상무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기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글로벌 화두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기술안보 등 신 통상이슈 동향에 대한 대응 협력 전략도 모색했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상무관들에게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2025년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첨병 역할을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디지털, 기술안보 등 신 통상이슈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등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힘써달라고도 했다. 성 장관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른 현재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협력 수요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협력과제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 출생·도축 등 이력제 빅데이터 공개

농식품부, 민간 분석·활용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부터 소 이력제에서 다년간 축적된 농장별 사육현황, 출생,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정보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를 개체별로 관리하고 도축·유통되는 축산물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소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축적해 정책에 활용해오던 소 이력제 빅데이터를 민간에서도 분석·활용해 축산업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소 이력제 세부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 상단 메뉴의 개방시스템을 통해 소 이력제 전반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이력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개되는 소 이력정보는 민간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분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소 사육현황과 출생·폐사·도축 마릿수와 월령 등을 활용해 향후 사육 마릿수를 예측해 농가 컨설팅에 활용하거나, 연관 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방부, 자가격리 장병에 친환경 도시락 용기 지급

국방부는 5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실천에 동참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중인 장병에게 친환경 도시락 용기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부대 내에서 예방적 격리를 받고 있는 인원은 2만7625명으로, 휴가복귀 후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14일 간 격리되는 인원이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플라스틱 1회용 도시락 용기에 담긴 식사가 제공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의 플라스틱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이달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연펄프 도시락 용기로 대체된다. 이번 급식 용기 교체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량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문형철 기자 captinm@

환경부, 전국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인식 분석, 정책개선 기초자료 활용

환경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5일~6월30일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해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

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